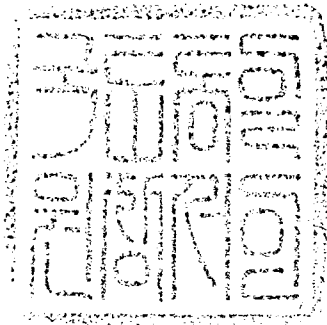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 5.



168

연구기관: 북한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이 광 우

目 次

第1章 序 論	3
第2章 北韓 勞動黨의 「主体思想」形成의 背景	6
第1節 主体性 論議의 一般的 傾向	6
第2節 歷史的 背景	8
第3節 解放後의 体制形成 經驗	13
第3章 「主体思想」 論理	16
第1節 人間主体概念의 導入	16
第2節 主体의 確立	20
第3節 「主体思想」의 定義	23
第4章 「主体思想」의 展開	26
第1節 思想에서의 主体確立	26
第2節 自主性の 擁護와 革命	33
第5章 「主体思想」의 實踐	36
第1節 基本路線	36
第2節 当面重要政策	40
第3節 權力構造의 性向	45
第6章 結 論	49

第 1 章 序 論

第 1 節 問題의 提起

1970年 8月 15日 光復節 25週年 慶祝辭에서 祖國의 平和統一構想을 밝혔은 朴大統領의 平和統一 宣言은 우리 民族史에 一大 轉機가 되었으며, 그에 隨伴한 一聯의 事態는 70年代 韓半島의 政治構造 속에서 우리가 처處하고 있는 發展 狀況을 過去와는 다른 次元에서 多角的으로 分析하는 努力을 要請하고 있다.

現在 南北對話로 表現되는 韓半島의 南北關係 進展과 並行한 各種 事態는 우리로 하여금 樂觀을 不許하게 한다.

그러나 歷史의 發展에 起伏이 있고 人間社會에 戰爭이라는 流血의 政治가 存在할수 있다고 想定할지라도, 人類史의 大潮流와 우리 民族의 歷史意志는 우리의 努力이 繼續되는 限 우리의 最高目標인 民族의 統一達成을 保障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이 目標을 向해 前進하는 道程에서 許多한 試鍊을 克服해야 한다.

兩極的 冷戰體制下에서 過去 우리가 經驗한 狀況과는 判異하게 複雜한 內外變數가 作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南北關係의 發展은 그 對決狀況에 變化를 招來하였으니 例를 들자면 軍事對決樣相은 陰性化되고 反面 思想對決은 陽性化되는 傾向에 있으며 따라서 相互往來와 直接對話의 進行은 各己 體制를 背景으로한 理論對決이 具體化되고, 相互間 體制를 開放 擴大하는

傾向에 따라 이데올로기 對決을 尖銳化하여 갈 것이다. 또 한편으로 思想 理念 體制를 超越하여 非敵對的인 모든 나라하고 友好 交流 하겠다는 韓國政府의 方針은 이 問題點에 附加的인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過去에 韓國國民의 相當 部分은 北韓共產集團이라는 對象을 通해서 共產主義를 一方的으로 認識하여 왔던 經驗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推定이 正當하다고 볼때 一聯의 到來할 새로운 事態에 對處해서 國民의 思想的 衝擊과 一時的 混亂을 予想하는 것은 無理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國民의 思想的 衝擊과 混亂을 預防하고 相對의 理念 對決에서 勝利할 수 있는 準備의 必要性이 增大되고 있다.

第2節 研究 方法

本 課題는 北韓共產主義思想體系의 研究가 中心이 되어야 하므로 北韓 共產主義者 集團이 自體의 體制를 防禦하고 發展시키기 위해 構成 表現한 思想的 形態와 內容에 檢討의 重點을 두기로 한다.

따라서 北韓 共產主義 理論의 源泉인 맑스·레닌主義와 北韓 共產主義思想形成에 影響을 주었다고 볼수 있는 「스탈린思想」이나 毛沢東思想 등은 本稿에서는 一般的으로 그 本質의 究明에 對한 論及은 省略하기로 한다.

共產主義에 對한 究明과 批判은 맑스·엥겔스가 1848年 「共產黨宣言」을 한 後 現在까지 125年間에 著名한 學者, 思想家, 政治

家들에 依해서 이룩한 成果를 參考로 하면 될 것이고 本 課題는 우리가 對決하고 있는 北韓을 正確하게 認識하는데 目的이 있기 때문이다.

北韓을 認識하는 方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北韓共産主義者들이 發表한 資料를 中心으로 直接 分析 檢討하여 問題의 所在에 接近하기로 하였으며, 주로 北韓이 近來에 極力 내세우고 宣傳하고 있는 統治 「이데올로기」로서의 “主体思想”을 根幹으로 한 反民族的 宣傳內容의 實態를 파악하여 그들의 「思想事案」과 宣傳方向을 究明하고 나아가 共産主義 批判과 南北對話 및 政治思想教育의 參考資料를 導出하는데 目的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北韓共産主義實態를 보다 더 根本的이며 具體的으로 批判하기 爲해서는 尙當하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며 別途로 研究가 要請되리라고 본다.

第2章 北韓勞動黨의 主體 思想의 形成의 背景

第1節 主體性 論議의 一般의 傾向

우리가 듣기에 어색할 정도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主體」 「主體思想」을 빈번히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勞動黨의 「唯一思想」이니 金日成의 「唯一思想」이라고 極口 宣傳하고 있다.

그러나 主體性에 對한 論議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唯一思想」에서 唯獨 「唯一」하게 主唱하는 그런 式의 「主體」 또는 「主體思想」만으로 理解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一般적으로 主體性이 논의되는 傾向은 政治的 經濟的 또는 社會的 不安에 類한 나라에서 發生하고 그 나라의 經濟的 發展과 政治的 安定에 따라 漸次 退潮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主體에 對한 反省은 歷史의 一定한 段階에서 後進國이나 新生國들이 지켜야 할 不可避한 關門이다. 弱少國의 경우에는 大國들의 強大國 政治의 渦中에서 精神的 自己同一性(Identity)을 確認하기 爲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일찍이 日本도 戰爭에서 敗하여 天皇을 위시하여 日本人의 主權이 聯合軍 最高司令部에 예속되었을 때에 日本社會에서는 「主體論爭」이 熾烈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戰後 「맑시즘」의 물결에 사상적으로 對抗하기 위한 主體의 立場이 問題된 일이 있었다.

戰後 西歐에 實存主義思想이 독일과 仏蘭西를 中心으로 만연하였

던 것은 방황하는 自我意識을 確立하기 위한 時代的 要請을 反映한 것이었다. 卽 무엇보다도 진정한 「自我」란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西歐 各國의 實存主義思想은 西歐文明을 威脅하는 共產主義에 對處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重大한 役割을 担当해 왔다.

本來 反省이란 行爲의 길이 一端 막힐 때에 싹트는 것이고, 進路가 確定되어 行動으로 實踐된 다음에는 主体性的 確立이 現實的으로 具現됐으므로 空論化되는 傾向에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우리 韓國에서의 主体性的 論議는 그 初期的인 形態에 있어서 歷史學을 專攻하는 教授들에 依해서 展開되었으며 나중에 各分野에 波及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1)

그 후 本格化되고 具體的인 論爭이 始作된 것은 5.16 革命으로부터 第3共和國이 發足할 무렵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民族主体性的 確立」과 祖國의 近代化, 民族의 中興을 國家目標로 提示하여, 우리 社會에 새 氣風을 振作하였으며, 一時 「民族的 民主主義」에 對한 論爭은 우리의 主体性 確立과 民主主義 土着化를 爲한 歷史的 陣痛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후 10餘年이 지난 1972年 3月 24日 全國教育者大會에서 朴大統領은 앞으로의 教育은 “內外的 試鍊을 克服하고 우리의 使

1) 「국토통일」 1971.2월호(조가경교수 논문) 북한공산주의 이론에 있어서의 실천 개념과 민족적 주체의식의 문제, p.20.

命을 다하기 위해…… 主体的 民族史觀을 定立하여…… 우리 民族의 傳統과 國家의 自主性を 지키며 民族主体思想을 確立, 国力培養을 위한 自主, 自立, 自衛의 三大目標를 추진해야 한다”고 力說하였다. 2)

以上과 같이 共產國家나 北韓에서 뿐 아니라 自由陣營의 여러나라에서도 主体性的 問題는 討論되기 마련이며 어느 民族이나 國家이든지 그 나라의 當面한 歷史的 狀況에 따라 「主体」의 問題는 論議될수 있으며, 各己의 差異는 言語의 表現形式 보다는 思想的 社会的 內容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北韓의 「主体思想」을 考察해 보겠다.

第2節 歷史的 背景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金日成이 演說을 통해서 「主体를 確立」할 것을 促求한 公式的인 始初는 1955年 12月 28日 그들의 宣傳煽動員들에게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確立할데 대하여”라는 題目으로 敎示的 演說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內容을 檢討하여 보면 “革命傳統”의 繼承을 強調하고 党的 組織路線을 貫徹하기 爲해 党的 思想体系 確立의 背景으로서 解放前의 「抗日武裝鬪爭」等 「共產運動」의 經驗에서 얻은 「敎訓」

2) 1972. 3. 24. 대구 전국교육자대회 「박대통령 치사」 참조.

即 「宗派分子」들의 영향, 「民生團」과의 鬪爭, 宗主國의 變덕과 中國共産黨으로부터 無視 當했던 時節의 思想鬪爭과 「自力更生」精神 等を 宣傳하고 있다. 3)

그외에도 金日成의 權威를 세우기 위한 方法으로 過去를 造作的으로 宣傳하여 「思想傳統」의 背景으로 삼고져 하는 努力을 볼 수 있다. 昨年 9月에는 過去보다는 比較的 「体系的」으로 外國記者들에게 「主體思想」이 나오게 된 經緯에 對해 自己의 所謂 「祖國의 自由獨立鬪爭 過程에서 얻은 經驗」과 解放後의 經驗을 내 세우고 있다. 4)

勿論 解放과 權力 形成의 初期에 提起된 問題點들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많은 反省과 對應策을 강구하게 했을 것이다.

소련軍의 占領과 소련式 統治方法의 移植은 소련 追從一辺到의 風土를 造成하였고 日帝統治의 타성은 相乘的인 結果를 招來했을 것이다. 이에 對한 方策으로 金日成은 解放直後인 1945年 가을 “우리 民族의 鬪爭歷史를 研究하여 우수한 傳統을 繼承해야 한다”고 力說했다는 것이다. 5)

初期의 權力形成側面을 參照할지라도 各地에서 모여들고 各派들이 參加한 「雜多한 構成」으로 「宗派分子」들의 影響을 받았을 것이

3) 1955.12.28. 김일성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4) 72. 9.17. 日本毎日新聞記者와의 會見內容 「主體思想의 몇가지 問題」

5) 1955.12.28. 김일성 연설.

며, 위로부터의 「革命」으로 인한 「群衆路線」의 虛弱性과 民族勢力의 抵抗은 共産黨의 體統을 세우기에 支障이 許多하여 對策으로 民族勢力을 一時 利用하였다가 國內派 共産主義者 等과 같이 肅清을 繼續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1950年 4月에는 소련에서 民族理論의 修正이 있었고 大陸에서는 中共의 建國과 新中華思想이 提起되었다. 6.25의 南侵과 失敗, 中共軍의 介入과 그 영향, 戰爭 失敗의 混亂과 權威喪失, 그에 對한 對應策으로 뻔뻔스럽게도 「祖國解放戰爭論」을 내세워 「愛國主義」를 鼓吹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戰爭失敗의 責任을 轉嫁하기 爲해 南勞黨派에게 터무니 없는 罪名을 씌워서 無慈悲하게 속청하고 큰 소리 치는 뻔뻔스러운 그들의 行爲는 滿天下가 周知하는 事實이다.

社會主義의 「土着化」가 이룩되지 못하고 社會主義 計劃의 強行에서 오는 住民들의 屢증과 「革命意慾」의 減少 等 問題點을 안은채 宗主國 소련에서는 大事變이 發生하였으니 그것은 “스탈린”의 死亡과 “후루시초프” 路線에 依한 “스탈린” 格下運動과 修正主義的 平和共存政策이었다. 그 衝擊이 北韓에 미치는 영향은 莫大한 것이었으며 甚之於是 金日成 支配體制 內部에서 소련을 다녀온 박영빈이가 美蘇關係改善을 參酌하여 對美關係를 變更해야 한다는 緊張緩和提議가 있었다는 것을 金日成은 指摘하였다. 6)

6) 1955.12.28. 김일성 연설.

또 한편으로는 南勞党派를 숙청하였으나 反金勢力의 存在와 威脅은 如前하였으며 共産圈内部에는 漸次로 独自路線의 傾向等 問題點이 露出하기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金日成은 一人支配體制의 基礎를 確立하기 爲해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中共式 追從)와 修正主義(소련式 追從)을 退治하고 主体를 確立할 것을 促求하였으며 그 名分下에 朴昌玉을 비롯한 소련派를 숙청하였고 金科奉을 비롯한 延安派까지 숙청을 強行하였다. 이에 對한 大衆의 疑惑은 「主体」思想 強調로 무마하고 더 以上 思考할 餘裕를 박탈하기 爲해 自力更生의 口號아래 「千里馬運動」을 展開하여 經濟建設에 動員 驅使하였다.

60年代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革命傳統」을 繼承하여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統一하겠다는 所謂 「南半部 解放」論을 完全 無色케 하는 事態가 發生하였다. 韓國의 4.19와 5.16 革命, 韓日國交正常化는 金日成의 立場을 難處하게 하였다. 쿠바 危機에 對한 宗主國의 態度에 失望하였고, 中蘇紛糾의 激化는 國家利益의 相克과 衝突의 事態까지 發生하였다.

1965年 4月 「인도네시아」를 訪問한 金日成은 4月14日 PKI (공산당)의 「알리·아르합」 社會科學院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政治學講演」을 하여 「主体思想」의 成果를 海外에 宣傳하고 友好協助를 다짐하였으나 4個月 後인 8月에는 政變으로 事態는 一變하여 PKI와 「스카르노」가 滅亡하였으니 金日成은 失望이

것을 것이다. 中共一辺倒의 印象을 씻고 方向의 調整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越南戰의 樣相은 變化하여 美國은 北爆을 斷行하고 (1965. 2. 7) 아세아의 共產政權을 緊張시켰다. 韓國軍의 派越과 軍裝備의 現代化 推進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切實한 새 需要에 즈음하여 機會主義的 打算과 實利的 対応을 하도록 하였으니 「自主性 宣言」으로 10大政綱을 採択하여 自主 自立 自衛 原則을 내세운 政策追求와 黨集中指導事業에 依한 一大住民숙청 事業을 進行하였고 四大軍事路線에 依한 全國家的 全人民的 防衛體制確立 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 하나의 놀라운 事件은 1967年 에는 金日成의 「抗日鬪爭」의 「戰友」이며 心腹으로 認定되었던 「甲山派」까지도 숙청하여 그의 唯一體制 確立이 極에 達하게 하였다는 印象을 주었다.

70年代에 들어오자 緊張緩和傾向의 進展에 따른 極東情勢의 解氷과 4強體制的 形成의 具體化, 韓國의 經濟發展과 國際的 進出은 北韓 金日成으로 하여금 態勢轉換을 試圖하게 하였다. 韓國의 平和統一宣言과 積極姿勢는 또 다른 角度에서 金日成에게 一聯의 平和統一功勢를 展開하게 하여 平和統一方案 8個條項의 提議와 南北 對話 呼應으로 變化하게 하였다.

72年末에는 憲法을 改定하여 一人支配體制를 보다 確固하게 唯一 思想體系로 整備하였다.

第3節 解放後の 体制形成 經驗

金日成은 「主体思想」이 나오게 된 經緯를 說明하면서 7) 解放直後の 形便과 6.25 戦乱 後の 社会主義建設의 經驗을 說明하였다.

“祖国에 돌아와서 「새조국」을 建設하기 위한 方案을 解決하려 하였으나 国家管理와 經濟運營의 經驗이 없었으며 우리나라의 後進性和 南北分断 等 어려운 条件下에서 至極히 困難하였다”고 한다. 그렇다 해서 処方을 만 곳에서 얻을수도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自体解決을 不可避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即 自力更生과 主体的 自覺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봉착한 先決 問題는 悲慘한 狀態에서 脱皮하는 길을 찾기 위해 “資本主義의 길로 나갈 것인가? 社会主義의 길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果然 共產主義者로 自勉하는 金日成이 이러한 虚言을 할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金日成은 資本主義에로의 길을 갈수 없었다는 口実을 宣伝적으로 羅列하면서 그렇다고 당장 社会主義로 나갈수도 없었다고 한다. 社会主義로 넘어가기 전에 解決해야 할 「民主主義革命課案」에 当面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実情에 맞게 「創造性」을 發揮하여 經濟制度는 勤勞大衆의 利益에 合致하고 広範한 人民大衆을 묶어 세울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

7) 1972. 9.17. 日本毎日記者会見.

실정에 맞고 民主的인 社会改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自己머리로 主体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土地改革을 하는 것이 “우리” 農村실정에 適合하겠는가를 研究하여 그들의 經驗이 남의 것을 形式的으로 模倣하는 것 보다 自己 問題를 自己실정에 맞게 自体 解決하기 爲해 努力하는 것이 妥当하다는 것을 實証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解放後 “새조국 건설의 鬪争”을 통해서 「主体思想」의 正当성이 實証되고 또 確信을 갖게 되었다고 宣傳한다.

다음에 金日成은 “美帝國主義者들”과의 3年 戰爭後의 社会主義 建設의 困難과 그들의 特殊性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宣傳한다.

戰後의 与件으로서 資本家와 富農所有를 수탈하는 方法이 不必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理由로는 戰爭으로 다 破壞되어 모두 無産者化했으며, 資本主義 經理를 그들 政權이 復活시킬 必要도 없었다고 한다. 中小企業者들도 反帝鬪争共同戰線이 可能하고 後進 工業國으로서 民族資本 保護의 必要性을 認定하기 때문에 그들의 살길은 協力하여 社会主義의 길로 前進하는 것 뿐이며, 手工業 技術도 協同하는 것이 個人經理 보다 優越하고 農民들의 切實한 要求는 農民들이 相互協助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맑스·레닌주의」의 命題라고 한다. 이와같이 工業化 實現에 앞서 農村經理의 社会主義的 改造를 대담하게 推進하는 것이 그들의 「獨創的인 길」이며, 中小企業과 富農을 收奪할 必要없이 協同組合에 網羅 改造했던 것은 그들의 「獨特한 길」을 택하였다고 하여 結論적으로

“生活은 어떤 既存公式이나 命題에 매달리는 것보다 자기 나라
人民의 利益과 자기 나라의 實情에 맞게 모든 問題를 解決해 나
가는 「우리 黨의 路線」이 옳다는 것을 또 다시 確證하여 주었다”
고 主張했다.

第 3 章 「主體思想」의 論理

第 1 節 人間主體概念導入

「主體思想」에 基礎한 靑少年 教育問題에 言及한 金日成은 “사람이 모든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한다는 것이 「主體思想」의 真髓이다. 自然과 社會를 改造하는 것도 사람을 위한 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世上에서 가장 貴重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存在도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事業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成果 與否는 사람과의 事業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8)

이와같은 「人間中心」 「人間萬態」 概念이 共產獨裁者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 우리의 通念으로서는 異常하게 느껴진다.

金日成은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이며 革命과 建設을 主動하는 힘도 人民大衆에게 있다는 思想이다. 다시 말하면 自己運命의 主人은 自己 自身이며 自己 運命을 開拓하는 힘도 自己 自身에게 있다는 思想”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인간을 「行為의 主體」 「運命의 主體」로 풀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金日成은 以上과 같이 陳述하고서 意外로 겸손하게 “이와 같은

8) 1972. 9. 17 김일성 기자회견 「주체사상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思想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發見한 것은 아니고 맑스·레닌主義者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만 나는 이와 같은 思想을 特別히 強調했다”고 「主体思想」을 共產主義者들의 通念으로 提示했다.

以上과 같은 金日成의 主張을 通해 北韓의 權力 「엘리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檢討해 볼 만 하다. 우리는 共產主義와 金日成과 北韓實態를 여러 모로 批判해 왔으며 批判의 「메스」로 「亂刺」된 것을 보는 例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金日成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대로의 「原型」을 보고 檢討하기로 한다.

人間主体概念을 말하고 人間中心思想을 論한다고 해서 그 論者를 人道主義者로 보거나 그 思想을 人道主義的이라고 速斷하여 認定할 수는 없는 것은 우리의 常識이다. 더욱이 北韓의 「主体思想」을 그들 스스로 金日成 「唯一思想」이라고 하며 또 金日成은 「우리黨」의 「唯一思想」이라고 부르며 서로 權威를 세워주는 것은 그 「思想」이 그 時代 그 社會의 普遍性을 갖는 思想이 아니고, 어떤 思想的 立場의 一定 部分이 言語表現을 通해 政治的으로 黨派的 支配와 動員을 爲해 利用되는 極端的이고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自認하는 것이다. 即 金日成의 一人 支配體制를 防禦하기 위한 思想的 政治道具 —— 이데올로기적 「슬로건」에 不過한 것인데 이러한 말 몇 句節로 人間性을 論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슨 根拠와 目的에서 이러한 表現을 했을까를 簡單하게 推定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權威을 喪失하고 危機에 이르고 있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再生을 爲해 權威의 源泉에로의 소급現象으로 볼수 있다. 共產主義의 權威의 源泉이란 「맑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頹廢하여 危機가 닥아 오면, 必然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이데올로기가 從來 維持하여 왔던 權威의 源泉이 追求되는 것이다. 마치 연어와 송어가 産卵地를 向해서 때를 지어 河川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처럼 權威의 源泉을 向해서 思想의 소급 行次가 始作된다는 것이다. 그 行次 目的은 勿論 危機에 處한 權威를 그 源泉으로부터 再確認하고 再確立하기 위한 것이지 權威를 打倒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9)

「맑스」의 初期思想에서 人間中心主義思想을 추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時期에는 아직 階級鬭爭 理論은 문제되고 있지 않으나 人間을 거의 万能한 主觀으로 定立하고 特히 「헤겔」이 人間을 觀照하는 主觀으로서 理論的(theorie) 本質을 重要視한데 反해 「맑스」는 行爲하는 主体로서 그 實踐的 本質을 強調하고 있다는 点이다.

「맑스」의 初期思想에서 倫理的인 面과 人間中心思想이 있다고 해서 共產主義者들이 極力 排除하여 왔으나, 「스탈린」 格下運動

9) 「社会主義の 死滅と再生」 志水速雄 中央公論 1月号.

이 展開된 後부터 소련 哲學界를 비롯해서 東歐에서 人間回復을 위한 人間主義的 社會主義思潮가 發生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⁰⁾ 이에 對한 解釋을 速斷해서는 안되겠으며 多角度로 分析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金日成은 그의 말처럼 「맑스·레닌主義」의 純潔性을 固守한다는 口實로 自己 權威를 세우기 위해서 「맑스」思想의 源泉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逆說的으로 前述한 바와 같은 東歐의 人間主義的 思潮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고 스탈린의 身勢를 免해 보려는 先手로 해석할수도 있다.

셋째로 毛沢東思想을 模倣하여 人間의 創造性概念을 導入하고 初期 中共革命運動式의 群衆觀點을 確立하려는 것으로 解釋되며, 스탈린 獨裁와 소련式의 模倣者가 되기 보다는 中共을 創始한 毛沢東처럼 「人共」의 創始者로 權威를 세워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넷째로 連續肅清의 「偉大한」 業積으로 現在로는 權力에 挑戰할 政敵이 全無하니 이제는 「어버이首領」으로서 東洋的 專制君主風의 「로맨티즘」을 풍기며 「仁慈하신」 「보살핌」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로 南北對話와 門戶開放을 위한 宣傳의 效果를 노리는

10) 人間主義的 社會主義 「北韓」 1973.4 月号, 崔光石.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主体思想을 提唱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金日成은 「主体思想」이 要求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람을 中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服務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말을 다른 角度에서 본다면 革命과 建設과 戰爭을 위해 勞動力과 戰鬥力を 所有한 存在로서의 人間이 貴重하겠으나 結局은 「모든 것을 金日成을 中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金日成을 위해 服務하게 하자는 것」이라 바꾸어 말하면 無理한 말이라고 할수 있을는지 의심스럽다.

第2節 「主体」의 確立

北韓의 「主体思想」에서 主体를 確立한다는 것은 “革命과 建設의 主人으로서의 自覺과 「主人다운 태도」를 堅持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11)

“누구나 自己가 主人이라는 것을 알때 熱誠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金日成은 說明하면서 “過去에 抗日鬪爭할때 누가 돈을 주고 시켜서 했겠는가?”고 反問하고 人民大衆들이 革命을 하는 理由에 對해 “自身의 運命을 開拓하고 祖國을 救援하기 爲한 것이라는 것을 自覺하게 되고 勞動을 하는 理由는 自己의 幸福과 社會의 繁榮을 爲한 것이라고 自覺할 때 모든 힘과 熱誠을 다해 일하게

11) 1972.9.17. 김일성기자회견.

된다는 것이다. 勤勞者들을 覺醒하게 하려면 꾸준한 教養事業을 해야 한다. 群衆을 教養하여 党的 周圍에 튼튼히 단결시켜야 한다”고 力說했다. 12)

即 “主体를 세운다는 것은 主体的 自覺에서 出發”해야 함을 強調한 것이다.

「主人다운 態度」即 主体的 態度確立은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에서 表現된다고 하고 人民의 利益과 나라의 實情에 알맞게 모든 問題를 解決해야 하며 革命에 對한 信心을 갖고 自己 힘을 믿고 自力으로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한다. 即 革命에 對한 樂觀主義와 自力更生精神으로 武装해야 한다는 것이다.

主体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積極的 姿勢가 要請된다는 뜻을 金日成은 強調한다.

“모든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主体가 없는것은 思想事業의 最大欠陥”이라고 前提하고 “모든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것치레만 하며 (형식주의), 創造的으로 事業하지 않고 남의 것을 베껴다가 외우기만 하는가 (교조주의) ? ”라고 노동당의 선전 선동일꾼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우리革命」을 옳게 遂行하기 爲해 서는 「우리」의 歷史, 地理, 人民의 風習을 알아야 人民을 「그들」의 口味에 맞게 教養할수 있고 「그들」이 自己 鄉土와 祖國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 人民의 鬪爭歷史와

12) 1955.12.28. 김일성 연설「사상사업에서……주체확립」

그 傳統으로 教養해야 「그들」의 民族的 自負心을 북돋아 줄수 있다고 「教示」했다. 13) 한가지 注目할 것은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이라고 極口 宣伝하면서도 金日成은 自己의 共産黨員인 部下들 앞에서 말할때는 「革命鬪争」에서 「우리」(主体)는 部下黨員들을 指称하고 人民들을 「그들」(客体)로 呼称하는 例를 指摘할 수 있다.

即 革命의 主人은 勞動黨이나 金日成이고 人民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真意임을 露出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소련에게 배우라」고 強要했다가 이제와서는 크게 「反省」하여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한다고 하나 「教示」만을 따르도록 強要하면서 主人다음게 「創造的」으로 일하라고 하니 그야말로 「創造的」으로 研究할 難題라 하겠다.

金日成은 主体確立의 獨自性を 維持해야 한다는 뜻으로 過去 「鬪争經驗」을 과시하면서 “主体를 세울 必要를 얼마나 절실히 느끼며 그것을 얼마나 強調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 그 나라가 처한 社会歴史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金日成式 「自主路線」과 独裁的 統治方式의 名分의 一端을 말했다.

「主体를 確立」한다는 主張은 宗主國追從 一辺倒의 方式과 風土로는 一人独裁體制를 維持하고 情勢變化에 適応하기에는 매우 危險

13) 1955.12.28 당선 전선동일꾼에게 한 연설.

하고 不利하다는 것을 痛感하고서 「反省」한 金日成의 方向調整方式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第3節 「主体思想」의 定義

北韓共產主義者들은 「主体思想」을 說明하거나 찬양할 때 思想內容은 一致하면서도 言語表現의 形式은 多少 多様な 듯 하다.

1967年 12月 16日 金日成은 「自主路線」에 立脚한 「十大政綱」을 說明하면서 “우리 黨의 主体思想은 革命과 建設의 成果的 遂行을 위한 가장 正確한 「맑스·레닌」主義의 指導思想이라 하였고 또 “「共和国政府」의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 이라고 하였으며¹⁴⁾ 이번의 新憲法 第4條에서도 “共和国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金一은 “金日成이 創始한 唯一하게 正確한 맑스·레닌主義的 指導思想”이라고 찬양하며¹⁵⁾ 金日成 「唯一思想」이라는 名分을 提示했다. 또 金日成의 말에 依하면 “복잡한 革命鬭爭 過程에서 얻은 敎訓과 經驗에 基礎하여 「우리」가 내놓는 「우리나라」 革命과 建設의 指導思想이다. 「우리나라」에서 主体思想은 社會生活

14) 1967.12.16. 최고인위 4기 1차회의보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자립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15) 「근로자」 1970. 1월호

의 모든 分野에서 俱現된 嚴然한 歷史的 現實이다. 主体思想을 깊이 把握하기 爲해서는 우리黨의 政策과 「우리나라」의 現實을 具體的으로 研究하는 것이 必要하다”¹⁶⁾ 고 했다.

北韓의 社会科学院 研究室長 이명섭은 “金日成思想은 革命과 建設의 主人인 人民大衆의 無窮무진한 創造的 힘을 最大動員하여 社会主義 建設을 다구칠 수 있게 하는 革命的 思想”이라고 比較的 率直하고 「正確」하게 말했다. ¹⁷⁾

이외에도 近来에는 北韓天地에서 모든 行事 集会和 出版物 新聞放送 等 모든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主体思想」 「革命思想」 「指導思想」 「唯一思想」을 찬양 宣傳하기에 狂奔하면서 「多樣」한 「讚揚定義」를 하고 있으나 그들의 表現을 다음과 같이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即 革命과 建設을 하기 위해서는 主体를 確立해야 한다. 왜냐하면 革命과 建設은 人民大衆을 위한 人民大衆이 遂行해야할 事業이기 때문에 人民大衆은 黨의 周圍에 (集圀의으로) 團結하며 “主人다운 態度를 堅持”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革命과 建設은 自然과 社会를 改造해야 하므로 主人다운 態度는 當然히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을 要請하게 된다는 共產主義者 나름의 一般的인 論理展開가 成立될 것이다.

16) 金日成 日本記者會見, 「主体思想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2.9.17.

17) 1973.2.27 「김일성노작 4주년기념」토론회 이명섭 열설.

結論으로 要約하자면 “共產主義革命과 建設을 위해 「人民大衆」의 힘을 最大로 集中 動員하기 위한 實踐指針”이라고 할수 있으며 特히 北韓의 경우에는 金日成 一人支配体制의 權威를 確立하기 위해 金日成을 偶像化하는 手段으로 活用하고 있음은 周知의 現實이다.

第4章 「主體思想」의 展開

第1節 思想에서의 主体確立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主體思想」은 「朝鮮人民의 革命的 傳統」을 繼承한 思想이며 金日成이 創始한 指導思想임을 強調한다.

그들의 勞動黨規約 (1961.9.18 改正) 에도 “朝鮮共產主義者들의 抗日武裝鬪爭에서 이룩한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의 繼承者이다” 라고 規定하고 있으니 그「革命的 傳統繼承」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맑스·레닌”主義의 一般的 原理를 「우리나라」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하여, 「朝鮮革命」을 勝利로 이끌어 나간 金日成을 爲始한 朝鮮共產主義들의 主體思想과 自力更生의 革命精神의 培養” 이라고 한다. 18)

金日成은 「思想事業에서 敎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体를 確立」할것을 促求하면서 「우리黨」의 思想事業에서 「主体」는 무엇인가 묻고 그것은 「朝鮮革命」이라고 自答했다.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 革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朝鮮의 革命을 하고 있다”고 「宣傳煽動 일꾼」들에게 「訓戒」했다. “思想事業은 朝鮮革命의 利益에 服從시켜야 한다”고 그들의 政治思想 教育의 目的을 闡明했다.

그리고 그 方向에 對해서는 그들이 蘇聯 共產黨의 歷史나 中國

註18) 勞動黨 宣傳煽動部 參考資料 朝總聯版 1963. P.70)

革命의 歷史, 「맑스·레닌」主義의 一般的 原理를 研究하는 것도 모두 「우리 革命을 옳게 遂行하기 爲한 것이며 群衆들은 「우리」 人民의 鬪爭歷史와 傳統으로 敎養해야 「그들」 (人民)의 民族的 自負心を 북돋아 줄 수 있으며, 자기 郷土와 祖國을 사랑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

그러나 이와 같은 變化를 民族主義 傾向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形式과 敎養手段上의 轉換으로 보아야지 民族化로 보는 것은 不當하다고 본다. 그 限界는 「內容」에서는 社會主義의 純潔性を 固守하면서 「形式」에서는 民族的이라야 하는 것은 "스탈린"의 말을 引用할 것도 없이 共產主義者들에게 共認된 文化觀이다. 毛澤東도 1938年 10月 中共黨 中央委 政治報告에서 "맑스主義는 반드시 民族의 形式을 거쳐야 實現될 수 있으며, 國際主義的 內容과 民族의 形式을 結合하여야 하며, 맑스主義의 中國化는 모든 表現에서 中國의 特性을 띠게 되어야 한다"고 力說하였다는 것이다. 20)

다음에는 「祖國解放鬪爭過程」에서 얻은 「敎訓」을 體得해야 한다고 金日成은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時期에 自己 運命은 自身이 開拓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갖게 됐고, 鬪爭路線과 鬪爭方法까지 모든 것을 自体가 解決하여 모든 困難과 試鍊을 克服하는 過程에서 貴重한 經驗과 敎訓을 얻었다는 것이다.

註 19) 1955.12.28 金日成 演說

註 20) 「北韓의 自主路線과 統一政策 批判」 朴東雲
아세아研究 1968.2月号

即 素朴하고 平凡한 勤勞 人民大衆이 革命的으로 覺醒되기만 하면 偉力을 發揮할 수 있으며, 如何히 不利한 條件에서도 能히 自力으로 革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認識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革命先輩」들의 鬪爭歷史와 傳統繼承을 心理的으로 強要하여 「自力更生」精神에 依해 內的으로 無理한 千里馬運動을 強要하고 外的으로는 對南工作을 強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革命群衆觀點」을 確立하라고 強力한 「敎示」를 金日成은 機會있을때 마다 反復한다. 20年前과 같이 今年의 新年辭에서도 言及이 있었다.

官僚主義의 出現을 警戒하고 그 完全한 清算을 促求하면서 群衆의 목소리와 利益을 尊重하여야 群衆을 爭取할 수 있다는 것이다. "群衆과 離脫한 黨은 마치 물을 떠난 고기와 같다"는 「格言」을 잊지 않기를 당부했다. 21)

官僚主義病은 現代社會主義 執權圈內的 모든 나라가 앓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不治의 「權力風土病」인 모양이다.

國內에서 革命運動을 進行하였고 土着的인 農民社會를 「革命根拠地」로 하여 中共特有의 「大衆路線」을 實踐하여 온 「思想體系」와 「革命傳統」을 갖고 있는 中共도 官僚主義의 害毒을 解決하지 못하고 「文化大革命」과 같은 特異한 「紅疫」을 겪어야 했다.

하물며 北韓共產黨 - 勞動黨은 重大特色으로서 始初부터 權力을 掌握하는 地位를 蘇聯軍에게서 賦與받아 結成됐고 밑으로 부터 大衆을

註21) 1955.12.28 金日成 演說

組織하여 革命을 遂行한 經驗없이 蘇聯軍 占領下의 政權担当組織으로 出發했다는 點을 考慮하면 金日成体制의 官僚主義는 그들의 「先天的」 體質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 解放直後 玄俊赫으로 象徵되는 밑으로 부터의 共産黨組織이 組織되고 있었으나 이것도 金日成의 손에 實質적으로 押殺 당해 버렸으니, 黨員의 大部分은 困難한 革命鬭爭의 經驗도 信念도 없이 처음부터 現實적으로 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黨에 入党했다는 事實이다. 21)

그리고 玄俊赫 暗殺을 起點으로 하여 始作한 金日成 一人獨裁의 特有한 「連續肅清」의 「메카니즘」은 그들의 「後天的」 體質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方式(肅清의 「메카니즘」)은 結局 새로운 型의 機會主義者와 立身出世主義者를 再生産하여 肅清의 必要性을 再生産한다……如何튼 이것은 社會主義社會에서의 新絶對主義 (「보나팔티즘」의 要素가 있는)의 形成을 實証하는 「메카니즘」” 22) 이라는 批評처럼 不治의 病임에는 틀림이 없다.

金日成의 支配 行態는 어떠한가를 앞에 引用한 日本의 左翼思想家の 말을 다시 引用하면 妙味가 있다. 그는 逆說적으로 金日成처럼 「眞實한」共産主義임을 自勉하고, 蘇聯의 肅清構造에 對한

註21) 金日成의 思想と行動 玉城 素, 1968. 日本)

註22) Ibid P. 78-79)

「부르제진스키」教授의 獨特한 分析 " The Permanent Purge " 의 内容에 對해 全的으로 贊成하면서 다음과 같이 考察했다. " 歷史上的 絶對王政은 封建社會에서 資本主義社會로 轉化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過渡期의 權力機構이며,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으로 急激한 轉換을 下向式으로 主導하는 役割을 遂行하는 것처럼 極히 恰似한 性格形態가 金日成政權이 걸어왔던 過程에 나타나고 있다. 「루이」王朝나 「푸레드릭」大王, 「피-터」大帝, 日本의 明治天皇이 하여왔던 것처럼, 金日成도 自身을 神格化하고 強硬한 文武의 官僚機構를 構築하고 있다".

" 過去 絶對王政이 그 上昇安定期에는 一定한 善政을 한 것처럼 第4次黨大會 以後의 金日成은 一時的으로 밝은 「英明한 指導者」 然하게 보여 준 時期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후에 곧 腐朽와 停滯를 自招하여 그 自身이 革命의 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는 段階에 逢着하는 것이 아닐까? 果然 이제까지 反對派를 打倒하고 黨을 「統一」시켜 왔다는 것은 그의 至極히 「有能한」支配者的 「資質」을 反証하고 있다 하겠지만 그가 一時라도 革命家였던 일이 있었는가? " 고 反問했다. 23)

다음에 金日成 一派가 그토록 貴重히 여기는 「主体」의 支柱이며 背景인 「革命傳統」이란 무엇인가?

北韓의 宣傳文書에 依하면 金日成은 1972年 여름, 즉 겨우 15

註23) Ibid

歲되던 때 滿洲에서 「反帝青年同盟」을 몸소 組織했다고 하며, 1930年 봄에 主体的 革命路綫을 提示했다고 한다. 이때의 그의 나이 18歲가 될 것이니, 1966年에 「自主性」을 宣言한 時期보다 36年前에 「主体的 革命路綫」을 宣布했으며, 21歲때 스탈린의 「콤민테른」派遣員을 감히 <接見하신> 자리에서 「朝鮮革命問題」等に 자기의 「主体的」立場을 力說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의 家譜上의 모든 先代들은 近代에서 現代에 이르는 韓國의 愛國的 革命運動을 독차지해 버렸다.

이러한 造作을 強行, 個人的 偶像的 崇拜作風을 宗教儀式化한 연극은 如何든 또한가지 열치없는 「創作」은 第2次大戦末에 滿洲와 北韓에서 日本軍을 격파하고 北韓의 主要都市를 解放한 것은 蘇聯軍이 아니라 바로 金日成 遊擊隊(뒤에 와서 이름부친 「朝鮮人民革命軍」)였다고 歷史를 황당무게 하게 날조하고 있다. 24)

金日成이가 滿洲에서 共產活動을 할때 처음부터 朝鮮共產黨에 加入하지 않고 中國共產黨에 加入하여 活動하였다고 한다. 그 當時 滿洲의 共產主義者들은 우리의 反日民族主義指導者 金佐鎭將軍을 비롯한 愛國者들을 殺害하였으며, 一國一黨의 原則에 依해 朝鮮共產黨 滿洲總局을 解体시켜 中共黨에 合流시켰다 하는데 그 當時 金日成은 中國共產黨에 이미 加担하고 있었으므로 中共幹部들에게 信任을

註24)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2) 梁好民著 高重研

언어 解体後 中共에 加入한 朝鮮共產主義들 보다 優位の 地位에서 先輩然했을 것이 推測되나 滿洲에 「朝鮮人民革命軍」이라는 国籍名 이 賦与됐다는 것은 人為操作이라고 보고 있다. 25)

그 當時 「民生團事件」等으로 中國人黨員들에게 韓国人들이 多數 殺傷當했으며, 中共의 指令으로 韓滿國境地帶에서 日帝軍警을 襲撃하는 例가 있었는데 그 影響으로 國內의 抗日愛國鬪士와 많은 同胞들이 日帝의 兇惡的 彈圧으로 많은 犠牲을 當하게 하는 結果가 되었다 한다.

그들이 最大의 「功績」으로 讚揚하는 事件이 1937年6月 「普天堡襲撃事件」이라고 宣傳하나, 日本支配下의 警察駐在所 面事務所等을 襲撃한 事件이 (Ibid. PP 188-190) 어찌하여 三.一獨立運動의 民族的 傳統을 無視하는 「革命傳統」이 될 수 있겠는가?

即 解放後에도 如前히 밖으로 부터의 「解放者」意識을 갖고, 政治的인 理論展開에 依한 情勢対応을 하려하지 않고, 不斷히 軍事的 觀點에 基礎한 「敵地」潛入, 後方攪亂方式을 原理적으로 固守하고 있는 것이 金日成集團의 問題点이다. 그는 解放後에도 一貫하여 北韓을 「民主基地」 또는 「革命基地」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지난날의 「國外빨찌산根拠地」와 同一視하고, 韓國을 日帝支配下의 「朝鮮」과 同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具體적으로는 6.25南侵을 普天堡襲撃의 大規模한 再現으로 看做하고, 休戰線 附近

註25) 前掲書 「金日成の思想と行動」 PP.215-216)

의 軍事的 不法行為의 頻發도 金日成路線이 必然的으로 産出하는 後方攪亂的 小規模出擊戰術의 發顯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事態가 金日成의 「革命傳統 繼承」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에 依한 「內半部 解放」의 唯一한 힘은 “밖으로부터의 「解放」 즉 武力뿐이라고 狂信하는 限平和統一의 길은 難關이 許多할 것이다.

第2節 自主性的 擁護와 革命

北韓의 主体性 追求는 國際政治的인 脈絡에서 볼때 1966年8月 12日 勞動新聞을 통하여 내세운 「自主路線」의 宣言과 結付된다.

「공산당 및 노동당들의 互相關係는 完全한 平等, 自主, 互相存重 內政不干渉, 同志的 協助등의 原則에 基礎하고 있다. 共産黨 및 勞動黨間에는 어떠한 特種적 黨도 있을 수 없다. 큰 黨과 작은 黨은 있으나 높은 黨과 낮은 黨, 指導하는 黨과 指導받는 黨도 있을 수 없다²⁷⁾는 것이다.

이와 같은 宣言은 共産圈內的 「小國」의 執權者의 立場에서 從來와는 달리 당돌한 편이다. 中蘇間의 힘의 關係를 利用 實利를 最大化시켜 보려는 보다 積極的인 政策的 면모가 엿보인다. 例컨대 近年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北韓의 對 中立圈 또는 後進國 外交強化의 試圖는 外交의 通商目標外에 共産圈內에서 自身の 發言權,

註27) 「노동신문」 1966.8.12 사설 自主성을 擁護하자

強化라는 目標가 添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即 後進國의 共產主義 方式의 發展模型으로 金日成 特有의 「革命」을 輸出하고 있다고 誇示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서는 对内 體制強化를 위해 住民說得과 金日成을 「小스탈린」에서 「小毛沢東」으로 다시 「小레-닌」 또는 그 以上으로 偉大한 「民族解放」과 「國家」創建의 「絶世」의 偉人으로 偶像化 神格化시키는데 惡用하고 있다.

그는 自主性 擁護의 理由를 “人間은 社会的 存在”라고 前提하고 自主性의 가치는 사람에 있어서 生命과 같은 것이며, 社会的 存在인 人間은 「社会政治的 生命」이 더욱 貴重하다고 했다. 따라서 自主性을 無視하면 人間自体를 無視하는 것이며, 自主性을 喪失하면 社会的으로 動物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革命家의 姿勢를 “노예로서 生命을 保存하기 보다는 自己를 爲해 싸우다 죽는 것을 몇배나 榮譽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28)

“自主的 立場을 견지하는 데서 무엇 보다도 重要한 것은 政治에서 自主性을 確固히 保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革命鬪争과 自主性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이 「說教」를 한다.
“모든 革命鬪争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계급적인 또는 民族的인 階級에서 벗어나기 위한 鬪争이다. 人民大衆이 自己의 自主性을 擁

註28) 1972.9.17 金日成 記者會見

護하기 위한 鬪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各種鬪爭의 目的을 說明했다. 29)

即 階級鬪爭에서 反封建鬪爭은 노예 生活에서 解放되기 위한 것이며, 反資本主義鬪爭은 搾取와 壓迫에서 解放되기 위한 것이고, 反帝國主義鬪爭 即 民族解放鬪爭은 自主權을 가진 民族으로 自由롭게 生存하기 위한 것이며,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鬪爭은 結局은 사람들이 온갖 壓迫에서 解放되어 自然과 社會의 主人으로서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生活을 享有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結局 이러한 「說教」가 現實과 얼마나 乖離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의 「偉大한 理論」으로 自身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現實에 알맞게 創造的으로 適用한다고 했는데 北韓의 現實은 共產獨裁體制이나 이 體制를 維持하는 創造的 方法은 金日成을 偶像으로 創造하는데 있다고 判斷한 모양이다.

果然 甲山派까지도 肅清하였으니 「革命傳統」의 唯一한 繼承者요 「體現者」가 된 金日成의 「教示」만이 北韓共產主義者의 「唯一思想」이 된다고 하겠다.

註29) Ibid

第5章 「主体思想」의 實踐

第1節 基本路線

北韓의 政策宣傳에 關한 文書에 依하면 「主体思想」을 政策 또는 活動等的 「指針」이라는 「定義」를 빈번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表現은 北韓共產主義들이 「主体思想」이 「思想」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들의 目標達成의 「實踐指針」即 一種의 「口號」임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例를 들면 「主体思想」은 “ 모든 政策과 活動의 確固不動한 指針²⁹⁾이라고 했으며, 또 “ 主体思想을 具顯한다는 것은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에서 革命과 建設을 힘있게 推進하는 것 ” 이라든지 “ 우리당의 모든 政策과 路線은 主体思想으로 부터 出發하고 있으며 主体思想을 具顯하고 있다. 主体思想은 그 어떠한 理論을 위한 理論이 아니라 複雜한 革命鬭爭 과정에서 얻은 敎訓과 經驗에 基礎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나라 革命과 建設의 指導思想 ” 또는 “ 우리당이 始終一貫 見知하고 있는 自主, 自立, 自衛路線의 正当性和 生活力은 人民의 革命과 建設 實踐을 通해 歷史的으로 確充되었다 ”³⁰⁾ 고 했고 그들의 新憲法 第4條는 「맑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朝線勞動黨의 主体思

註 29) 「國家活動의 모든 分野에서 自主, 自立, 自衛의 革命精神을 더욱 徹底히 具顯하자」 1967. 12. 16. (10代政綱) 發表

30) Ibid 김일성 기자회견

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宣言하였을 뿐 아니라 北韓勞動黨의 規約³¹⁾ 에도 「맑스·레닌」主義를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다고 하였고, 金日成은 “ 맑스·레닌主義는 行動의 指針 ”³²⁾ 이라고 까지 하였다.

따라서 「主体思想」이란 共產主義를 行動의 指針으로 하는 金日成이가 「領導」하고 共產主義를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하는 北韓勞動黨이 그들의 政策目標를 實現하기 爲해 住民들을 最大로 動員하기 爲한 實踐指針으로 解釋된다.

그러면 그들의 主体思想에 依한 그들의 自主, 自立, 自衛의 基本路線의 內容을 檢討하기로 한다.

첫째, 政治에서의 自主性原則의 內容은 國際社會에서 主体的 民族으로서의 資格要件을 論하고 있다. 卽 「自己運命의 主人으로서의 民族」은 自主的 政權을 保有하고 政治에서 自主性이 保障되어야 한다고 對外的 立場을 強調한 듯 하다.

自主性 保障의 要件으로 自己의 指導思想을 保有하고 自己人民의 利益과 自國의 實情에 符合한 方向을 設定하여 民族自決에 依한 모든 政策과 路線의 決定能力을 保有해야 한다는 것이다. 性格面에서 모든 民族間에 完全平等해야 하며 互相尊重을 要求하며 그것은 남에게 예측되는 것을 反對할 뿐 아니라 남을 예측시키는 것도 反對한다고 하면서 “ 남을 예측시키는 民族은 決코 自信도 自

註 31) 1961. 9. 18 改正

註 32) 로동신문 1966. 8. 12. 私說 「自主性を 擁護하자」

由로올 수 없는 法이다 ”는 「맑스」의 말을 引用했다.

大体的으로 어느 民族国家에서나 主張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러한 「當然한」 主張을 內容은 다르나 1966년에야 「自主性」을 擁護하자고 宣言했다는데 問題點이 있다는 것은 그 當時 北韓의 背景을 감안한 金日成의 속셈은 우리가 周知하는 事項이다. 그 當時에는 주로 共產圈內에서의 自主性을 強調한데 反해 近来에는 「民族的」 自主性을 強調한 點이 特色이라는 것은 時代的 環境適 應으로 解釈된다.

둘째로 經濟에서의 自立性의 內容이다. 나라의 自主性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政治的 自主性和 함께 經濟에서의 自立性을 強化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強調했다. 그 要點은 ① 增加하는 人民들의 物質的 需要를 充足시켜주는 基盤이고 ② 人民들의 「主人인 立場」을 物質적으로 保障하는 要件이며 ③ 國家의 政治的 自主性 保障의 必須要件이 되며 ④ 國防에서의 自衛路線 貫徹의 基礎가 된다는 것이다.

1966年 8月 12日 로동신문 私說을 통해서도 自立的 民族經濟는 自主性의 物質的 基礎³³⁾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人民들의 主人인 立場」을 내세운 點이 特色이다.

果然 北韓의 實情이 人民들로 하여금 「主人」이라고 느끼게 해주었는지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反省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바로 問題點이 되고 있는 「國防에서의 自衛」에 對한

註 33) 로동신문 私說 「自主性을 擁護하자」

宣伝内容이다. 金日成은 말하기를 “自己를 擁護 保衛하는 것은 人間의 本性이다. 나라도 亦是 自己를 保護하는 手段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고 한다. 너무나 常識的인 말이다. 또 自衛는 自主獨立의 必須的 要求이며, 「帝國主義侵略者」들이 殘存한 條件에서 “内外의 원수들”로 부터 自己의 「主權」을 擁護保衛할 수 있는 自衛的인 防衛力을 가지지 못한 國家는 事實上 完全한 自主獨立國家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基本立場인 듯 하다. 都 大体 「内外의 원수」들”이란 무엇을 뜻하며 누구를 겨누고 하는 말인가? 이에 對해 더 以上 論及하는 일은 紙面의 浪費가 된다.

「革命傳線을 繼承」한 「人民民主主義革路線」과 符合된 그들의 基本原則에 나오는 「必然的」인 歸結이다.

그들은 全人民的 全國家的 防衛體制에 依拠하며, 現代戰과 革命戰의 合法則性에 立脚한 「四大軍事路線」의 貫徹을 豪言하며 「革命的 大事變」을 맞이 할 本格的 對決의 時期에 對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武裝力의 使命」을 “勤勞人民의 利益을 擁護하며 社會主義制度和 革命的 戰取物을 保衛하며 祖國의 自由와 獨立과 平和를 지키는 데 있다”는 名分을 내 세우고 있다. 34)

「革命的 戰取物」이란 表現은 解決에 따라서 매우 包括的일 수 있겠으나 그 內容은 피의 肅清의 連續으로 戰取한 世界에서 類例

註 34) 北韓 憲法第 14 條.

를 볼 수 없는 金日成族閥統治의 絶對的 独裁基盤을 뜻할 것이며, 「祖国의 自由」는 人間의 基本權을 유린하고서 北韓의 執權層만의 「榮華로운」 自由를 뜻한 것으로 解釈된다.

金日成에 依하면 主体思想을 俱現한다는 것은 自主的立場과 創造的立場에서 革命과 建設을 힘입게 推進한다는 것이라고 하며 또한 主体思想이란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国防에서 自衛의 原則을 堅持하는 것이라고 한다.³⁵⁾ 事實 이러한 諸種의 原則은 어떠한 主權國家이든 体制의 独自性을 갖추기 위하여 追求하는 發展目標로서 그 自体로서 큰 意味를 賦与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諸原則의 說明으로 所謂 金日成 唯一思想体系의 真髓가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主体概念의 虛構性이 드러난다.³⁶⁾

第 2 節 当面 重要政策

近来에 北韓에서 内外적으로 強調하고 있는 当面한 重要政策에 內容을 大略 살펴 보기로 한다.

1. 祖国의 平和統一 實現

北韓이 对内政策에서 主体思想을 俱現하기 위하여 무엇에 重点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朝鮮革命」에서 主体思想을 俱現하기 위하여 当面하게 나서는 가장 切迫

註 35) 金日成 記者會見 1972. 9. 17

註 36) 以上の 引用文中 特別한 주석이 없는 것은 1972. 9. 17. 金日成 記者會見 內容中에서 引用하였음.

한 問題는 우리 祖国의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것이라고 했다.

即 「朝鮮革命」——「主体思想」——「祖国의 平和統一」의 一貫性을 明白하게 定式化 하였다. 37) “오늘 외래침략자들을 내쫓고 全國的 範圍에서 民族的 自主權을 確立하는 것보다 더 切實한 問題는 있을 수 없다”고 前提하고 「南朝鮮」은 近 30年間 外勢에 依存하여 平和統一을 防解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外勢依存이 亡國의 길이라는 것은 民族受難의 歷史를 通해 體驗한 深刻한 教訓이라고 했다.

当面課業으로 먼저 「南朝鮮」 人民들이 自主自立精神으로 外勢反對鬭爭을 展開하고 「南北 全体 人民」들이 自主平和統一을 實現하기 爲한 鬭爭에 힘차게 나서야 한다고 主張했다.

다음에 그들이 7.4 南北共同声明에서 合意했다고 宣傳하는 「祖国統一 三大原則」의 內容은 어떠한가를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金日成은 南北關係發展에 對해 그들의 基本立場을 밝히면서 “勿論 「우리」가 提議한 것은 南朝鮮側과 「政治會談」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家族찾기 運動이라도 좋으니 會談을 하였다” 38)고 한것을 分析하면 그들이 南北對話에 나서는 目標은 1971年 4月 12日에 提議한 「平和統一方案 8個條項」에 依한 政治會談을 實現하자는 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豫想한 바와 一致

註 37) 金日成 記者會見 1972. 9. 17.

註 38) 1972. 9. 17. 金日成記者會見中 「朝鮮의 平和的 統一問題에 對하여」

한다.

첫째 「自主」의 原則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民族自決의 原則에서 自主적으로 統一하자는 것이라고 하며 「美帝國主義」, 日本의 一部 反動들의 軍國主義를 現在의 外勢로 보고 逐出해야 하며, 韓國의 軍事 施設強化와 軍事訓練도 外勢와 關係있다고 보고 있으며, 「유엔」은 外勢가 아니라고 하는 韓國의 見解를 極口 非難한다.

둘째로 平和的統一의 原則은 相互內政不干涉으로 南北이 相互 自己의 制度를 相對方에게 強要하지 않으면 同族끼리 싸울 理由가 없다는 것이다. 特히 注目할 點은 南朝鮮이 앞으로 어떤 社會로 되는가 하는것은 南朝鮮 人民들이 自己의 意思에 따라 決定할 것이다 ”고 金日成은 말했는데 外勢의 排擊과 人民의 意思에 依한 決定이라는 一連의 公式속에 그들의 基本路線인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는 點은 省略 또는 隱晦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그는 韓國의 “自由의 바람”을 猛烈히 非難했다.

셋째로, 思想과 理念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의 大團結을 이룩할 原則은 그 前提가 되는 條件이 南北關係에서 뿐 아니라 韓國國內에서도 社會를 「民主化」하여 各黨 各派人士들의 政治活動自由가 保障되어야 할 것을 要求하며, 社會의 民主化가 實現되면 自主 平和統一을 願하는 「모든 力量」이 集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政府當局이 反共派이나 國家保安法등의 改編을 拒否하고 野黨人士들과 接觸까지도 妨害한다고 非難하고 있다. 民族大團

結을 實現하는 方法은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로 풀수 없는 問題가 많으니 多方向的 接觸과 協商을 實現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社會의 民主化」는 어떤 것이며 「모든 力量」이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이 宣傳한 「統革黨」의 自由活動을 公認한 「民主化」로 그들을 包含한 모든 力量일 것이다.

그리고 平和統一 方法論의 結論으로 民族的 團結의 成就를 容易하게 하고 外勢를 排擧하여 自主的 平和統一을 完遂할 수 있도록 南北聯制를 實現하자고 主張한 그들이 北韓憲法 第5條의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란 무엇인가를 說明해야 한다.

2. 三大技術革命 推進

北韓에서 主体思想을 俱現하기 爲한 當面한 重心的인 課業은 三大技術革命을 힘있게 밀고 나가 人民을 힘든 勞動에서 解放하는 것이라고 金日成은 말하고 있다. 39)

“擄取와 壓迫에서 解放된 우리 人民에게 있어서 이제 解決해야 할 重要한 問題는 고된 勞動에서 解放되는 것”이라고 歷史的 意義를 強調하고 그들의 憲法에서도 技術革命에 依한 勞動의 差異와 都市 農村의 差異, 階級的 差異를 解消할 것을 強調한다. 40)

따라서 國家와 社會의 「主人」인 人民들의 生活을 自主的 創造的으로 改善하겠다고 課業의 目的을 提示했다. 그 理由는 經濟建

註 39) 1972. 9. 17. 金日成 記者會見

註 40) 北韓憲法 25 ~ 26條

設이나 技術革命이 그 自体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人民들에게 國家와 社會의 主人으로서의 보람찬 生活을 提供하기 爲한 手段으로 되어야 한다는 勞動黨의 一貫된 立場을 表現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金日成獨裁下에서 北韓同胞들이 「主人」이 될 날이 온다고 믿는 사람은 共產主義者들 中에서도 없을 것이다.

3. 靑少年敎育事業

北韓은 主體思想에 基礎한 靑少年敎育問題에 큰 關心을 돌리고 있음을 밝혔다. 그 理由는 靑少年들이 代를 이어가면서 革命을 繼續하여야 할 革命의 後備隊일 뿐 아니라 社會發展에서 사람들을 敎育 敎養하는 것 보다 더 重要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敎育敎養이 重要한 理由는 그것이 社會發展의 原動力이고 革命과 建設을 推進하기 爲해 앞세우는 事業이며 社會生活의 物質的 基礎인 生活手段을 創造 改善하는 사람을 爲한 事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敎育事業은 “사람과의 事業”의 重要한 部分이며 사람을 「改造」하는 事業이며 모든 事業의 成果는 사람과의 事業의 如何에 左右된다고 한다. 또 敎育은 知·德·體를 兼備한 社會的 人間으로 育成하는 事業이라고 定義한다.

그러면 「社會的 人間」이란 다음과 같은 要件을 具備해야 한다고 說明한다.

첫째로 健全한 社會的 意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革命하는 時代의 젊은 世代는 革命思想으로 武裝해야 하

고 社會主義建設時代의 人間은 科學, 技術, 文學, 藝術을 理解해야 하고 둘째 時代에 適合한 意識水準과 文化水準을 具備해야 社會生活에서 「主人」답게 參加할 수 있고 革命과 建設도 힘있게 推進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10年制 高中義務 教育을 推進하고 新世代들이 革命的 世界觀의 骨格이 선 有能한 社會主義者로 成長시켜,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여 社會主義建設 進展에 寄與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靑少年教育은 「國家」와 社會의 「主人」인 金日成의 「家父長的 溫情」으로 「革命後備隊」가 될 靑少年을 偶像崇拜의 狂信徒로 育成시켜 金日成族閥政治의 永統化를 위한 私兵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다음에 北韓의 各分野別 政策과 事業의 名分을 「主體思想」에 依해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檢討하는 것도 參考가 될것이나 本稿에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第3節 權力構造의 性向

北韓 勞動黨의 權力構造를 金日成 長期執權의 一人支配體制로 壓縮해서 보면 北韓의 政治行態로서의 特徵이 있겠으나 우선 北韓도 共產主義政權의 一種으로 보고 現代 「맑스·레닌」主義 政黨이 共有하는 理論上的 基本問題부터 檢討하기로 한다.

本來 「맑스」와 「엔겔스」의 段階에서는 별로 明確하지 못했던 社會主義政黨에 對한 概念이 「레닌」에 이르러 勞動者階級の 唯

一無二의 前衛黨이라는 概念으로 單純化되고 定式化 되었었다. ㅅ
聯에서는 ㅅ로레타리아獨裁 即 共產黨 一黨獨裁로 轉化된다는 形式
으로 實現되었었다. 이 前衛黨은 露西亞의 特殊性으로 因해서 政治運
動 뿐 아니라 勞動運動 文化運動 思想運動等 모든 領域에서 獨占
的權威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 黨內에서 一時的으로 容認되고 있었던 分派活動의 自由가 一
時 停止되고 「스탈린」에 와서 完全히 否定되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코민테른」 第三次大會 (1921年)부터 使用되기 始作한
「大衆的 前衛黨」이라는 奇妙한 概念이 그 後 스탈린의 「레-닌 逝
去 記念 黨員 募集」 方式부터 人民戰線時代의 西歐諸國의 黨活動中에
具體化되어 下向的으로 「모델」化 되었다.

以上과 같은 諸修正의 結果 共產黨은 恆常 모든 領域에서 「唯
一無二의 權威」라고 하는 獨善概念에 充滿되고 그 觀念에 사로
잡히고 또 自黨을 他勢力이나 他思想으로 부터 守護하려는 自己防
衛的 傾向과 黨內에 指導者와 大衆이라는 支配 「메카니즘」을
갖는 官僚政黨化의 傾向이라는 二大特徵的 傾向을 併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黨의 指導部로서는 黨과 黨中樞를 批判하는 모든 意見은
빠짐없이 左右의 機會主義者이며 宗派主義 修正主義者로 認定되고
또 더욱이 이와같은 行爲는 「唯一無二의 支配的 權威」를 破壞하는
反黨 反階級的인 政敵으로 意識된다.

이와 같은 性向은 根本的으로 思想的 性格과 政治的 性格의 矛

盾, 前衛의 性格과 大衆의 性格과의 矛盾, 政治的 現實主義와 思想的 排他主義와의 矛盾 등의 現象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現代政治面에서는 다음과 같은 重大한 矛盾을 露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첫째로 自黨 만을 最高權威라고 하여, 이것을 防衛하는 立場에서 必然적으로 發生하는 國際諸黨間的 分裂과 本來의 名分으로써의 푸로레타리아 國際主義와의 矛盾과

둘째로 政治的 現實主義로서는 統一戰線戰術이 必要하지만, 原則적으로 그 將來는 푸로레타리아獨裁——共産黨 一黨獨裁를 目標로 設定하지 않을 수 없다는 點에서 他黨이나 他勢力의 疑心과 警戒을 招來하지 않을 수 없다는 矛盾에서 이것을 緩和하고자 하는 曖昧한 規定이 「人民民主主義革命論」이다.

세째로 政治的인 力量을 強化하고자 하면 그에 正比例하여 黨內외의 批判思想을 敵對視하여 스스로 閉鎖集團化하지 않을 수 없다는 結果인데 이러한 問題點 때문에 오히려 黨의 思想的權威와 黨內의 思想的 創造性을 漸次 喪失하지 않을 수 없다는 矛盾에 빠진다.

以上과 같은 諸矛盾은 「맑스」의 思想을 創造적으로 發展시켜 現實에 適用한다는 口實로 自己類의 一方的 修正傾向만을 正當化하고 權威化하여온 「맑스·레닌」主義의 世界的 潮流 그 自体가 現在 蓬著하고 있는 共通의 矛盾이다.

이러한 矛盾과 問題點을 가장 많이 內包하고 있는 政權이 金日成의 一人支配族閥獨裁이다.

近 30年間の 長期執權期間에 内部에서 上向的인 大衆革命의 基盤도 經驗도 없는 金日成은 恆常 不安한 自己權力을 強化하기 爲해 스탈린式 統治方式에 依한 連續肅清의 메카니즘을 維持하여 오던 중 着服한 것이 中共式 革命戰略으로 對南攻勢를 推進하면서 中共 創建의 毛沢東式 權威를 模倣하여 내놓은 思想이 「主体思想」이며 그에 對한 極端的이며 焦燥한 表現이 「唯一思想」이다.

그리고 一人支配를 強化하기 爲해 自身의 側近인 甲山派 마저도 肅清한 金日成은 不安하고 孤獨한 權座를 守護하기 爲해 막다른 統治方式이 亞細亞的 族閥政治의 發想일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 權威를 「創造的」으로 強化하기 爲한 길이 스탈린式 新憲法의 制定과 中共式 國家主席制의 創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第6章 結 論

北韓의 思想体系와 權力構造에 關해서 檢討해야 할 많은 部分을 省略하기도 하였으며, 또 多角的으로 分析하기도 못하였다는 點에 對해서 뿐 아니라 미련한 論理展開를 自責하면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主体思想」實踐으로서의 政策과 宣傳의 成果, 問題點 및 展望에 對해 簡單한 評價를 試圖하므로써 結論을 代身하기로 한다.

1. 對外政策面에서 北韓은 中·쏘·北韓 三角關係에서 實利的 對應을 할 수 있었으며, 匪·阿·中南美 등의 中立圈에 進出하여 그들의 地位向上을 圖謀하였고, 資本主義國家와의 關係改善의 口實의 布石이 可能했다는 點이 成果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問題點은 國際情勢의 解氷에 따른 極東의 4強體制形成에 適應할 方向調整과 近來에 있었던 「革命輸出」의 非難, 資本主義國家와의 接近으로 過去의 修正主義非難의 名分을 喪失하였으며 共產圈內의 人間主義的 思潮의 發生과 漸次的 開放에 따른 北韓社會의 矛盾에 對한 對策의 苦心이라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將次 어떠한 對應策으로 나올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은 그들 路線의 本質인 國際主義와 自主路線의 一致性을 더 욱 더 合理化하여 宣傳할 것이다. 둘째로 平和五原則을 主体思想에 配合하여 그들 對外活動과 對外關係를 合理化할 것이다.

세째로 國際機構에 積極參加하려고 努力할 것이며, 네째로 招請外

交等に 依한 「人民外交」를 積極 推進할 것이다.

2. 对内政策面에서는 一人支配体制를 確立하였고 住民들의 實踐意慾을 鼓吹하며 千里馬의 動員을 強行하였으며 青少年教育을 強化하여 金日成 偶像化에 狂信的 追從을 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特記할 點은 四大軍事路線을 強行하여 軍事動員体制를 確立하여 獨裁基盤을 더욱 強化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不得已 完全 閉鎖体制에서 漸次的으로 開放함에 따라 閉鎖的 劃一化와 偶像化政策의 限界性を 意識하게 될 것이며, 歪曲된 思想教育의 矛盾이 露出될 것이다. 또 生活水準의 向上과 國防建設의 相衝이라는 問題點에 逢着하게 될 것이다.

이에 對한 그들의 對應策은 첫째로 「革命傳統」을 더욱 浮刻시켜 正統性を 宣傳하게 될 것이며 둘째로 思想的 刺戟에 相應한 物質的 刺戟의 增大에 苦心하게 될 것이며, 셋째로 軍事路線에서 革命戰爭側面을 強化할 것이다.

3. 統一攻勢面에서는 그들이 一時的이나마 民族主体性を 假裝할 수 있었고, 朝總聯等 海外僑胞의 一部를 說得할 수 있었으며, 外勢 排擊 宣傳의 口實이 되었다. 그리고 自主平和統一을 假裝한 宣傳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成果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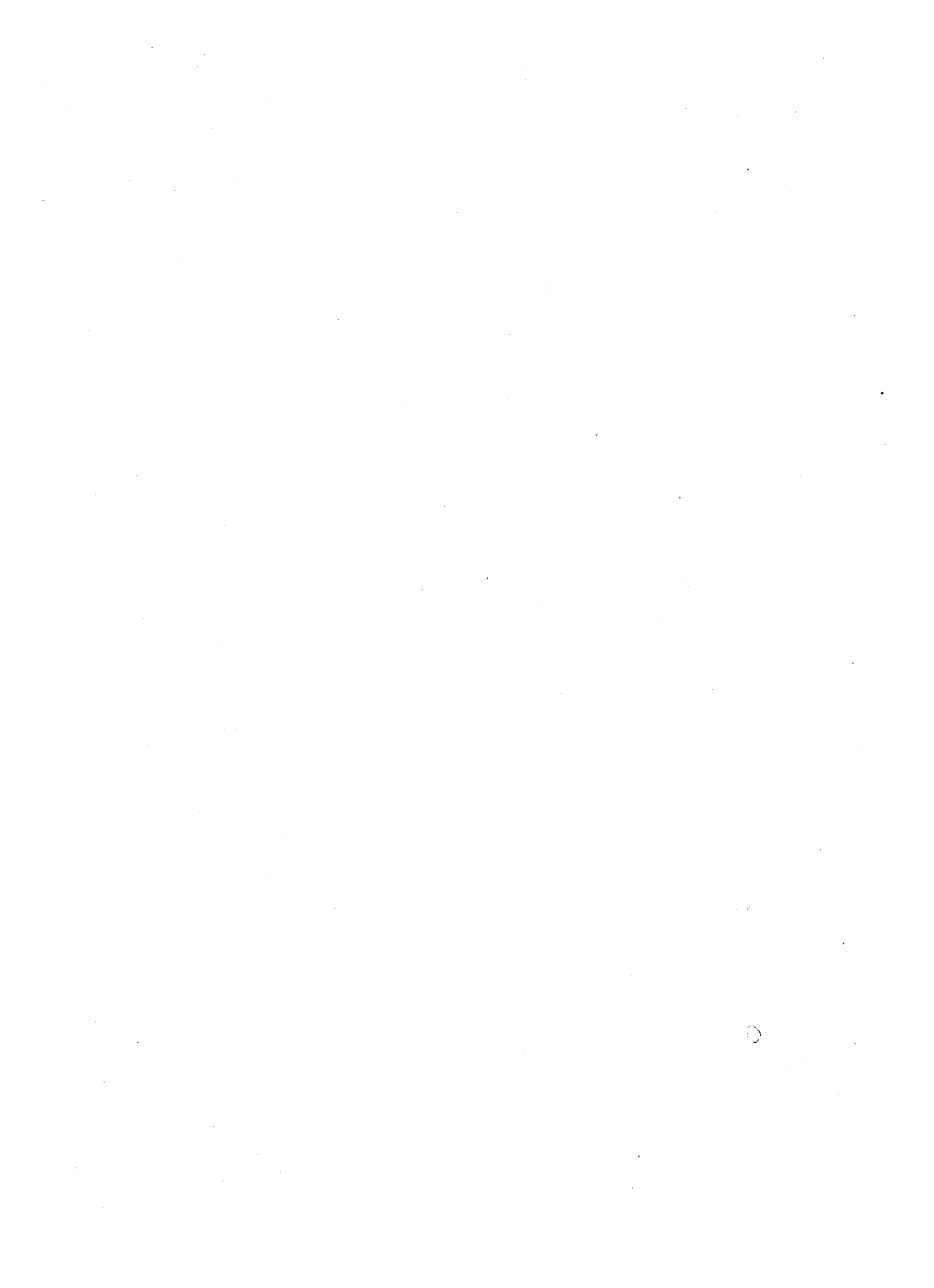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은 眞實한 民族主義理念의 挑戰을 받아야 하며, 在日 僑胞 北送과 南北對話의 後遺症이 自體内部에 씩들 것이며, 美國, 日本과의 接觸 또는 交流擴大는 外勢 拳論의 限界에 到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対応策으로 첫째 統一3原則에 依한 南北合作을 強力히 主張하고 聯邦制를 提議할 것이다. 둘째로 民族主体性 名分으로 外軍撤退 實現을 促求하는 宣傳하고 民族의 信賴回復과 平和統一努力을 名分으로 南北의 平和協定을 固執할 것이다.

以上을 綜合해 보면 그들의 成果로는 一人獨裁體裁의 確立과 金日成偶像化에 일단 成功하였고 統一攻勢에서 一時 宣傳效果를 믿었다고 보겠으나, 金日成의 主体性을 根拠로 한 思想과 黨政策의 絶對性 無謬性的 強調은 「主体思想」의 全身硬化症을 治療할 수 있는 機能을 喪失해 버렸으니 이에 對한 処方은 金日成의 「創造力」을 期待하는 方法인데 結局은 自体手術의 새로운 「肅清」으로 執權엘리트의 一部를 交替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고 보여지나 人間性回復의 歴史的 必然 即 自由化의 潮流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에 對外的인 面에서 國際情勢에 새롭게 適應하기 爲해서는 二律背反的인 矛盾을 안고 苦役을 치루어야 할 것이며, 統一攻勢面에서도 그들의 이제까지의 宣傳面과 實踐面에서의 相馳는 그들의 虛構性이 漸次로 露骨化 되고 있다.

이에 對한 그들의 對策은 極東四強體制에 相應한 對外政策 轉換과 方向調整에 골몰하게 될 것이며, 韓國에 對해서는 緊張緩和 誘導戰略과 人民革命戰略을 配合한 政策을 巧妙하게 追求하여 平和統一을 志向한 우리의 努力에 많은 問題點을 提起할 것이다.



발행일자	1973년 5월 일
발간업채명	주식회사 서라별문예사
대표자	김재성
인가근거	내이 515.2-10803 (70.5.21)
참여자	북한문제연구소
	이광우

